

한국십진분류법(KDC) 한국소설항목의 세분방안에 대한 연구

-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Close Classification for Korean Fiction in KDC: Focusing on Public Library

김성원(Sungwon Kim)*

목 차

- | | |
|----------------------|-------------------|
| 1. 서론 | 3. 한국소설장서 분류 개선방안 |
| 2. 한국소설장서의 중요성과 분류현황 | 4. 결론 |

초 록

문학류(literature)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분야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소설장서는 단일주제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서이다. 공공도서관 전체 장서의 14%가 한국소설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장서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소설장서의 분류를 위한 한국십진분류법(K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의 분류항목은 813 하나의 목(目; section)이다. 전체 14%에 해당하는 장서가 천구분에 해당되는 하나의 목항목에 집중되어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서량이 많은 현대한국소설을 위한 항목으로는 세목(細目; sub section)인 813.6과 813.7의 두 항목이 배정되어 있고, 실제로 다수의 도서관에서는 813.6 하나의 세목항목을 활용하여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도서기호를 통해 추가적인 세분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소설류에 배정된 분류항목이 적어 개별자료에 부여된 청구기호의 식별력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관리자의 배가작업 및 이용자의 검색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소설류의 세분 전개가 가능하도록 한국십진분류법(KDC) 해당 항목의 세분 전개방안을 모색하고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ABSTRACT

Of the collection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the literature collection is the largest, and Korean fictions, about 14% of the entire collection constitute the largest single subject. However, in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KDC) Korean fiction is represented in one section, that is, 813 which corresponds to the only one of thousand divisions. More specifically, only two sub-sections, 813.6 and 813.7 are supposed to be assigned to the huge collection of modern Korean fiction, and, in reality, only 813.6 is being used in most libraries. Even with the use of book numbers, such disproportionate allocation of classification numbers would definitely lower the discriminative capacity of call numbers given to each item. It would also bring about difficulties in both shelving, on the libraries' side, and finding items from shelf, on the users' sid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ssues related to classifying Korean fictions in public libraries, including the composition of KDC schedules and the actual practice of classification, and then proposes the measures for improving the classification of Korean fictions.

키워드: 한국소설, 분류체계, 분류작업, 상세분류, 한국소설분류, 한국십진분류법, 문학, 공공도서관
Korean Fiction, Classification, Classifying Practice, Close Classification, Classifying Korean Fiction, K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Literature, Public Library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ungwonk@cnu.ac.kr)

논문접수일자: 2012년 7월 9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8월 10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57-78,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3.057]

1. 서론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2000년대 들어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한국도서관연감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수는 2006년 514개관에서 2011년 759개관으로 증가하였다. 문헌정보학계로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제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을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 지원이라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주요기능은 동법 2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된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7개항으로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을 첫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공공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용을 위해 자료를 공중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도서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관내열람과 관외대출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는 자료의 열람과 대출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가장 기본적 서비스 기능인 관내열람과 관외대출 등 이용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수서, 분류, 목록 등 도서관의 여러 기능들이 어느 하나도 부족함 없이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가능하다.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미흡함이 발생한다면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의 한국소설장서는 기본적 열람,

대출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여타의 주제와는 차별화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양적인 비중이 크다는 점이 기본적인 이유이다. 또한 양적인 비중만큼이나 질적인 관점에서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이며, 이용자들의 열람과 대출과 같은 이용이 많을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에서 특화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독서교실이나 독서치료 활동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정보자료이기 때문이다(윤희윤, 김일영 2011).

열람과 대출서비스는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이를 위해서는 분류, 목록 등 관련 업무 영역에서의 균형 잡힌 질적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장서의 비중이 크고 이용이 많은 한국소설장서에 대한 열람과 대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한국소설장서에 대한 분류와 목록 등 관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에서 한국소설장서에 대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조건인 분류작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십진분류법 한국소설 항목의 세분 전개 부족에 따라 도서관에 따라서는 수천 종의 장서가 하나의 세목(813.6, 813.7)에 분류되며 도서기호를 통해서도 충분히 개별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구기호의 식별력은 떨어지게 되고, 개별 자료에 부여된 청구기호의 식별력이 낮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배가 및 이용자의 검색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관리자의 배가와 이용자의 검색상의 어려움은 도서관의 기본적인 서비스인 열람/대출서비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소설장서의 분류 및 배가에 문제점이 있고 이로 인해 원활한 열람 및 대출서비스가 저해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한국소설장서 규모에 비해 한국십진분류법의 세분전개 항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용자로서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검색단말에서 검색한 한국소설 자료를 서가에서 찾지 못하였던 연구자의 경험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¹⁾ 공공도서관의 기본적 서비스인 열람과 대출서비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소설의 분류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경험한 것을 계기로 한국십진분류법의 한국소설항목과 공공도서관에서의 분류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분류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정비된 분류표가 필요하다. 한편 분류작업의 기준이 되는 분류표가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실무자가 이러한 도구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분류작업의 완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분류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분류실무도 적절히 수행되어야 분류작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고려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현장에서의 한국소설장서의 분류현황도 함께 살펴 문제점을 파악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KDC 한국소설 항목의 세분 전개방안을 검토하고 그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현장의 실제 분류작업을 살펴보고, 분류작업의 기준이 되는 분류표의 전개안을 실제 장서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분류표의 개정안 제시에 집중하였던 기존의 여러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도서관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열람 및 대출서비스에 있어 그 비중이 높은 한국소설류장서에 대한 분류작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대전 및 충청남도 소재한 일부 공공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였던 이유로 연구결과를 국내의 모든 공공도서관으로 확대시켜 일반화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들의 운영환경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면 상당수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로서 일정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한국소설장서의 중요성과 분류현황

이 장에서는 한국소설류 분류문제의 개선방안 고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제반 관련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도서관에서의 한국소설장서의 비중과 서비스

1) 해당 공공도서관에서는 한국소설류를 청구기호 순이 아닌 서명의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있었다. 서명(본표제)을 기준으로 배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 배열은 목록작업과정에서 채택한 본표제 이외의 대등표제 혹은 표제관련정보를 기준으로 배가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한 목록에는 대등표제나 표제관련정보가 충분히 기술되지 않아 서가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었다.

제공 상의 중요성, 한국십진분류법 5판의 한국 소설류 분류항목, 그리고 실제 공공도서관에서 한국소설 장서를 분류하고 있는 현황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2.1 공공도서관 한국소설장서의 중요성

공공도서관에 있어 한국소설장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소설장서가 공공도서관 전체 장서 가운데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 크다는 점,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의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이용관점에서의 비중이 크다는 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공공도서관의 장서 가운데 한국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여타 관종과의 비교를 위해 대학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내서 장서비중도 함께 조사하였다.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장서통계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운용중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주류별 장서통계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센터를 통해 입수하였다. 국내 도서관들의 국내서 주류별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공공도서관의 장서 가운데 문학류의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2).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문학류 장서는 전체 장서의 40.1%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국내서 장서 가운데 문학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집계되는 것에 비교하면 두 배에 해당되는 비중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KDC로 분류된 국내서 단행본 중 문학류가 25.9%를 점하는 것과 비교하여도 공공도서관 장서 가운데 문학류의 비중이 크며 이에 따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문학류 장서 가운데 한국소설장서의 비중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공공도서관 장서데이터와 윤희운과 김일영의 선행연구(2011)에서 조사된 공공도서관 장서 중 한국문학과 한국소설장서 비율을 활용하여 추산하면 한국소설장서가 전체 공공도서관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03%로 추산된다.²⁾ 분류표의 천구분에 해당하는 항

<표 1> 국내 도서관들의 주류별 국내서 장서비중(단위: 천 권, %)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	
공공도서관	권 수(천)	3,070	3,090	1,964	10,590	4,564	4,561	3,271	2,630	26,523	5,841	66,108
	구성비(%)	4.6	4.7	3.0	16.0	6.9	6.9	4.9	4.0	40.1	8.8	100.0
대학도서관	권 수(천)	7,070	4,235	4,128	21,644	3,767	12,328	5,662	3,547	17,168	6,401	85,950
	구성비(%)	8.2	4.9	4.8	25.2	4.4	14.3	6.6	4.1	20.0	7.4	100.0
국립중앙도서관	권 수(천)	138	107	208	688	154	388	175	151	767	180	2,961
	구성비(%)	4.7	3.6	7.1	23.3	5.2	13.1	5.9	5.1	25.9	6.1	100.0

2) 공공도서관 장서구성과 관련한 윤희운과 김일영의 선행연구에서 문학류 가운데 한국문학장서의 비중은 50%, 한국문학 중 한국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68.46%로 집계된 바 있다. 공공도서관 장서 중 한국소설장서의 비중을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의 문학류비중(40.1%) × 한국문학의 비중(50%) × 한국문학 중 한국소설의 비중(68.46%)]의 산식으로 추산하면 공공도서관 장서 중 한국소설장서의 비중은 14.03%로 추산된다.

목인 813 한국소설 목항목 하나에 분류될 장서의 비중이 14%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소설 가운데 현대소설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도하고 있는 상호대차서비스인 '책바다' 서비스에서 한국소설 분류항목인 '813'으로 검색된 자료는 24만 4천여 종, 한국현대소설 분류항목인 '813.6'로 검색된 자료는 14만 2천여 종으로 한국소설장서 가운데 현대소설이 58.2%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소설장서가 공공도서관 장서의 구성에 있어 단일주제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는 중요성에 더하여 이용의 관점에서도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도서관의 기본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도서관의 대출서비스과정에서 집계된 대출실적을 반영하여 산출한 공공도서관 한국소설장서의 이용계수³⁾는 1.26으로 이용이 활발한 한국문학의 여러 장르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윤희운, 김일영 2011).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되고 있는 장서 군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소설은 도서관의 기본적인 대출서비스와 더불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종의 독서교실 및 독서치료 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선호되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로 분석되고 있다(오은영 2007; 이경란 2011). 이러한 한국소설장서의 중요성은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있어 여타의 관중에 비해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있어 한국소설장서의 중요성은 소설류가 국내 출판종수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점(대한출판문화협회 2012)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한국소설장서는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서이며,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활용의 관점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중요한 장서 군임을 확인할 수 있다.

2.2 한국십진분류법의 한국소설항목

공공도서관에서 한국소설장서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선행과정으로 분류 및 목록작업 등 정립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분류업무는 대상자료의 주제를 분석하는 단계, 분석된 주제를 용어로 변환한 후, 분류표의 색인을 활용하여 분류표에서 채택한 통제어휘인 표목어를 확인하여 부여하는 단계, 그리고 이를 분류표에서 찾아 배정된 분류기호를 확인하고 분류기호로 표현해주는 단계를 거쳐 수행되며 이 과정에서 분류표를 활용하게 된다.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도구의 수월성이 확보되어야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듯이, 분류작업 역시 작업과정에서 활용하는 도구인 분류표의 수월성이 분류작업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절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분류의 도구로 널리 채용하고 있는 한국십진분류법의 한국소설 항목의 전개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십진분류법 5판의 한국소설류 분류항목은 한국문학의 소설을 위한 항목인 '813'아래 다음과

3) 이용계수는 $UF = (\text{전체 대출 중 특정주제 장서의 대출비중}) / (\text{전체장서 중 특정주제 장서의 비중})$ 으로 산출된다.

같이 전개되어 있다.

한국문학	
813	소설 Fiction 야담, 고담[전 813.7]을 포함한다.
.4	고려시대
.5	조선시대
.6	20세기, 1910-1999 신소설을 포함한다.
.61	1910-1945
.62	1945-1999 도서관에 따라 현대소설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602 단편소설
	.603 역사, 전기, 정치, 사회소설
	.604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
	.605 추리, 탐정, 모험소설
	.606 괴기, 유령, 공포소설
	.607 과학(SF), 공상, 판타지 소설
	.608 기타 소설
[813.7]	야담, 고담 813에 분류한다.
.7	21세기, 2000- 도서관에 따라 813.6과 같이 세분한다.
.8	동화 우화를 포함한다.

〈그림 1〉 한국십진분류법 한국소설항목 전개

한국십진분류법 5판의 한국소설류 분류를 위한 분류항목은 4판의 항목전개에 비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4판의 813.7에 전개되어 있던 ‘야담, 고담’에 별도 항목을 배정하지 않고 813에 분류하도록 하고, 813.7에는 2000년 이후 간행된 21세기의 한국소설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한 것이다. 또 다른 변화는 813.6과 813.7 아래 분류되는 현대소설과 21세기 한국소설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02-08’의 소설세분형식을 조합하여 세분전개할 수 있는 별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자료의 양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야담, 고담’에 배정된 813.7항목을 21세기 한국소설에 배정한 것이나, 한국소설의 세분방안을 제공하였다

는 점에서 두 가지 개정 방향 모두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개정의 방향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의 항목 전개는 몇 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우선 813.7 ‘21세기’ 소설 항목의 적합성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소설이 출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대소설을 위한 항목 늘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2000년 이후에 간행된 자료를 현대소설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분류항목에 분류하는 것의 논리적 적합성은 수긍하기 어렵다. 2000년이라는 구분의 기준이 소설의 관점이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단지 년도의 숫자가 변화된 것을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항목의 설치의 듀이십진분류법의 문학류에서 2000년 이후를 별도의 시대구분 항목으로 설치한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듀이십진분류법 문학류의 시대구분 역시 2000년 이후의 문학작품을 위한 별도의 항목을 전개하고 있기는 하지만(Dewey 2011) 여전히 2000년이라는 숫자의 임의성과 년도의 첫 자리숫자가 1에서 2로 변하였다는 것 이외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학적, 사회적 변화가 부재한 구분인 것만은 변함이 없다.

2000년이라는 항목 신설의 기준의 적합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 결과로 전개된 항목의 실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 판단된다. 한 분류항목에 지나치게 많은 자료가 분류되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한국현대소설을 20세기 813.6과 21세기 813.7로 나누더라도 현재 813.6 한 항목에 지나치게 많은 자료가 분류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813.7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813.7

항목을 적용하면 해당 항목에 분류되는 자료가 많지 않을 것이나 한국소설의 발행종수가 연간 2,000종 내외임(대한출판문화협회 2012)을 감안하면 조만간 20세기 한국현대소설 항목인 813.6 항목에서 하위 세분항목 부재로 겪었던 문제들이 813.7에서도 재연될 것이다. 5판에서 채택한 2000년 이후의 한국소설 813.7 항목의 전개로는 분류항목의 수용능력이 4판의 813.6 항목과 같이 제한적이며 예상되는 장서의 증가에 대처할 수 없기에 그 실제적 효과에 대해 회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로 5판에서 별법으로 전개한 현대소설의 세분형식별 항목전개를 적용하는 경우 교차분류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별법의 항목전개를 적용하면 현대소설의 기타 형식에 속하는 소설은 '813.608(혹은 813.708)'의 주제기호를 부여받게 된다. 별법을 채용하지 않고 813.6 현대소설의 전집류를 분류하기 위해 현대소설의 기본기호 813.6에 전집을 위한 표준구분 '-08'을 조합하면, 별법에서 전개한 기타 형식의 현대소설 세분항목 기호인 '813.608'과 동일한 분류기호를 배정되고 교차분류가 발생한다. 4판을 적용하였던 도서관에서 기존의 813.6의 항목에 표준구분을 조합하여 주제를 분류하고 있었다면 별법으로 전개되어 있는 세분형식구분과 중복된 분류기호가 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도서관의 상세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5판에서 설치되어 있는 세분형식을 위한 분류기호로 검색을 수행한 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

다음은 분류기호의 경제성에 관련된 부분이다. 5판의 전개와 같이 항목을 전개하는 경우 장서의 양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한국소설장서는 세목에 배정되어 각각 '813.4'와 '813.5'의 짧은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서의 양이 많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 소설자료를 별법인 세분형식 항목을 적용하여 분류하는 경우 '813.70N'과 같이 6자리의 분류기호를 배정받게 된다.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를 고려하지 않고 이론적인 시대구분만을 기준으로 항목을 전개한 결과로 빚어지는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한국현대소설과 같이 장서의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류항목에서 기호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후의 목록을 위한 입력작업과 이용자의 청구기호 식별 및 기재 등 분류기호를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된다.

이상 분류작업을 위한 도구인 분류체계 즉 한국십진분류법의 한국소설항목 전개의 현황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고안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도구의 수월성이 전제되어야 도구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관련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듯이, 분류작업의 기본도구인 한국십진분류법의 개정 시 한국소설장서를 위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며 충분한 논의를

4) 이러한 도서관의 실례로 K시립도서관을 들 수 있다. K시립도서관의 웹 사이트에서 한국십진분류법의 기호를 기준으로 상세 검색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한국현대소설 '813.6'에 표준구분기호가 조합된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공공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이렇게 표준구분을 조합하여 '813.608'에 분류된 자료가 2,400여 종인 것으로 집계된다.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3 한국소설장서의 분류현황

분류작업의 도구인 분류표가 아무리 완벽하게 제정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실무과정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이 역시 분류작업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도서관들의 한국소설류 분류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에서의 한국소설류 분류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대전·충청남도 소재 공공도서관 6개관을 선정하고 담당자를 인터뷰하여 한국소설장서의 분류작업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이유는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을 보급하고, 공공도서관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서지정보를 참고하고 있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영향력이 크고 공공도서관의 관련업무에 모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공공도서관들에서 채용하고 있는 분류법으로는 한국십진분류법 5판을 채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4개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판을 적용하고 있는 4개관 가운데 한 도서관은 한국소설장서의 경우에는 5판의 813.7 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4판의 813.6 항목만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한국소설장서에는 한국십진분류법

4판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소설장서에 대해서는 한국십진분류법 4판을 적용하는 도서관과 5판을 적용하는 도서관이 각 3개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소설장서의 분류에 한국십진분류법 5판을 적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 한국소설류의 분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나는 분류항목의 개정에 따른 재분류의 부담이다. 5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4판에서 813.7에 분류하였던 '야담과 고담' 관련 자료를 813의 항목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며, 813.6에 분류되었던 2000년 이후의 한국소설자료를 813.7로 재분류해야 한다. 한국십진분류법 4판의 813.7 '야담과 고담' 항목에 분류된 자료의 양은 많지 않아 큰 부담이 되지 않으나 813.6에 분류되었던 2000년 이후의 한국소설자료의 재분류는 현장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한국소설장서 분류에 한국십진분류법 5판을 적용하는 도서관들에 대해 재분류 작업의 수행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5판을 적용하고 있는 4개관 가운데 신설 도서관 1개관은 재분류 작업이 필요치 않았으며, 재분류 작업이 필요한 3개관 가운데 1개관만이 재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재분류의 부담은 한국십진분류법의 발간시점과 관계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십진분류법 5판은 2009년도에 발간되었고 이에 따라 2009년까지 발간된 한국 현대소설은 4판의 813.6에 분류되어 있어 재분류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분류법의 개정시점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함을 절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재분류의 부담은 장기적으로 보면 5판 혹은 이후의 최신판으로 분류표를 변경하는 시점에서 모든 도서관들이 겪게 될 문제가

될 것이다.

4판을 적용하고 있는 도서관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4판을 쓰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으나, 한 도서관은 한국소설류의 재분류의 부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5판의 적용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5판을 적용하나 한국소설장서에만 4판을 적용하는 도서관도 재분류의 부담에 따라 문학류에만 4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한국소설류의 재분류 부담에 따라 한국십진분류법 5판 채용까지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재분류 부담을 고려하고 또 2000년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크지 않은 것으로 양보할 수 있다면 차라리 2010년 이후의 한국소설만을 새로운 항목에 분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5판을 적용하는 도서관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동일한 시점에 발간된 한국현대소설이 813.6과 813.7로 분리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813.7 항목의 경우 2000년 이후의 소설자료에 대해 현대소설과 구분하여 분류하도록 전개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항목이 설치된 것은 5판이 발간된 2009년 이후로서 9년간 도서관에 입수된 2000년 이후 발간된 소설은 4판에 따라 813.6에 분류되어 있어 수년에 걸쳐 발간된 다권본으로 구성된 소설류나 입수시기가 다른 동일 판본의 소설의 경우 각 권의 발간년 혹은 입수시점에 차이가 있으면 813.6과 813.7로 나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신설도서관 1개관과 재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1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들에서 공통된 문제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동일시점에 발간된 한국소설류가 상이한 분류

항목에 분산되어 분류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일부 도서관에서는 2000년 이후의 발간된 21세기 한국소설자료를 813.7에 별도 분류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였다.

5판에서 별법으로 제시된 세분형식별 항목의 적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5판을 적용하고 있는 4곳 가운데 세분항목을 적용하는 도서관은 1개관으로 조사되었고 3개관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분전개를 적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모든 소설자료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담당자가 임의로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적용한 실적은 수십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적용 도서관과 4판을 사용하는 도서관의 온라인열람목록에서 5판의 별법전개항목 '813.602~813.608'의 분류기호로 검색하여도 검색되는 일부 자료가 있었으나, 이는 별법의 적용결과가 아닌 4판의 813.6 항목에 표준구분을 적용하여 분류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분형식을 도입하여 소설장서를 세분하는 방안에 대해 4개관의 담당자는 바람직한 방안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나머지 2개관의 담당자는 세분전개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신설도서관의 경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적용 이유에 대해서는 재분류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용치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분류의 부담이 없는 신설 도서관의 경우에는 장서의 수가 많지 않아 세분항목의 적용을 검토하지 않았으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별법으로 전개된 항목의 적용과 관련하여 또 다른 어려움은 앞 절의 한국십진분류법 한국소설항목에서 언급하였던 교차분류의 문제이다.

기준에 4판의 한국소설항목인 '813.6'의 항목에 표준구분을 적용하였던 도서관에서는 이들 분류기호와 5판에서 별법으로 전개된 분류기호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는 이유로 별법으로 제공된 세분형식항목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법의 세분형식 항목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구분은 추가적으로 '0'을 부여하여 조합하도록 지시하는 명확한 주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적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과 적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도서기호를 조사한 이유는 도서기호로 저자기호를 채용한 경우 도서기호를 주제세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리재철 1986). 저자기호를 활용한 주제세분의 방안의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공공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2001년 이후 한국소설류의 청구기호를 '분류기호-입수년-해당년도의 수입순번호-권차기호-복본기호'로 구성하고 있다.⁵⁾ 즉 해당 항목아래에서 주제의 세분이 가능한 저자기호 대신 임의적인 입수순기호를 채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설류에서 주제세분의 기능을 갖는 저자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항목에 분류되는 자료의 양이 많아 자료의 개별화가 어려운 한국소설항목에서 주제를 세분할 수 있는 도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도서관들에서 이러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영

향으로 입수순 도서기호를 채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종류는 상이하나 모두 저자기호법을 채택하고 있었고,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들은 대부분 동일한 저자기호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저자기호를 통한 주제의 세분전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소설류의 세분전개에 있어 해당항목의 주제세분의 도구로 도서기호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도서기호로서 주제의 세분에 활용할 수 있는 저자기호를 채용하고 있었지만 한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그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 동일한 저자기호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중복하여 배정하고 있었고 저자기호를 통해 청구기호를 개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저자기호의 전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에 부여되는 청구기호를 개별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어떠한 도서기호를 채용하더라도 동일 분류항목에 지나치게 많은 자료가 분류되어 있으면, 개별화시키기 위해서는 청구기호가 복잡하게 구성되고 식별과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나 도서기호의 추가적 전개를 통해서라도 청구기호가 개별화될 수 있다면 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이상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소설류의 분류현황과 관련한 여러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국소설자료에 배정된 청구기호의 실제 '813.6-2-787-1-7'의 구성은 한국십진분류법 분류기호: 813.6, 도서기호: 2-787/ 연도별-수입순번호(2002년도에 787번째로 들어온 한국소설 자료), 권차기호: 1-7/ 해당 자료의 책 번호(해당 자료가 1권에서 7권까지 있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입수순 기호는 2001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공공도서관의 한국소설류 분류현황

도서관	적용중인 KDC 판종	재분류 작업 수행여부	세분형식분류		도서기호
			적용여부	필요여부	
국립중앙	5	미수행	미적용	필요	년도별 - 입수순 기호
1	5(4)	미수행	미적용(4판)	필요	엘로드(Elord) 저자기호법 (저자명 온전채기)
2	5	수행중	일부적용	불필요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3	4	미수행	미적용(4판)	필요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4	5	미수행	미적용	불필요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 저자기호표 (도서기호 부여시 개별화위한 확장적용)
5	5	신설도서관	미적용	유보(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 저자기호표
6	4	미수행	미적용(4판)	필요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단 소설류의 배열은 서명순)

종합하면 공공도서관 현장에서는 한국소설 장서를 한국십진분류법 4판과 5판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5판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별법 세분형식전개의 적용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고 세목인 813.6과 813.7로만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십진분류법 5판을 적용한 경우, 분류항목 개정에 따른 재분류 작업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재분류 작업의 부담은 기존 4판을 계속 사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또 5판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재분류 작업은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21세기 현대 한국소설자료가 813.6과 813.7로 분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도서기호를 통한 주제세분은 중복된 저자기호의 배정을 허용함으로써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지고 있으며 청구기호의 개별화를 위한 저자기호의 추가전개 노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한국소설장서는 813.6과 813.7 두 분류항목에 집중되어 분류항목당 지나치게 많은 자료들이 분류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항목 내에서 각각의 자료를 개별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던 6개 공공도서관은 장서규모에 따라 많게는 8,400여권의 한국소설이 하나의 세목항목에 분류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류작업의 결과로 한국소설 자료는 중복되는 청구기호를 배정받게 되고 이로 인해 관리자는 배가작업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용자는 검색한 자료를 서가에서 찾을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실제로 연구자가 방문하였던 충청남도 소재 모 공공도서관의 경우 자료의 배가를 비전공 기능직원과 공익요원이 담당하고 있었고 자료는 청구기호를 무시한 채 서명의 자모순으로 배가되어 있어 검색된 청구기호로는 서가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의 배가와 발견상의 어려움은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열람과 대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고 이는 전체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만족도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소설류의 분류실무를 개선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3. 한국소설장서 분류 개선방안

앞 장의 논의를 통해 공공도서관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소설장서를 위한 한국십진분류법 분류항목의 전개와 공공도서관 현장에서의 분류작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파악된 현황과 문제점에 기반하여 한국십진분류법의 관련 항목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개정방안을 실제 한국소설 표본 장서에 적용하여 적합성을 검증한 후, 구체적인 세분방안 등 한국소설류 분류 전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에 기반하여 분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던 기존의 연구방법에 비교하여 실증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세분항목 전개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3.1 한국십진분류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안

3.1.1 개정의 필요성

한국십진분류법의 한국소설항목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한다. 문헌량 근거 혹은 문헌적 근거는 1) 특정주제에 관련된 문헌의 양, 2) 특정 분야에서 표현되고 구체화된 지식의 양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136). 문헌적 근거는 문헌정보학 영역에서 다양하게 참조된다. 분류체계 구축시 해당 주제 항목의 실제 문헌의 양인 문헌적 근거를 반영하여 항목의 설치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색인작성 및 검색의 과정에서는 색인어나 검색어의 문헌적 근거를 참조하여 그 적합성을 검토하기도 한다(Chan 1980, 29). 문헌분류체계에

서 분류항목의 설치 및 전개는 기본적으로는 이론적인 주제구분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실용적 성격을 갖는 문헌분류체계는 이론적 분류체계의 논리적 성격에 더하여 실제 해당 주제 장서량의 다과를 반영하여 분류항목의 설치 및 전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분류체계의 설정과 관련하여 문헌적 근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헌량이 많은 주제분야는 세분 분류항목을 더 설치하고 논리적, 이론적으로는 중요한 주제이나 실제 해당 영역의 문헌량이 적다면 분류항목은 축소되는 것이다. 미국의회도서관 분류법 개발 초기 이러한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실제 장서규모를 반영하여 분류항목을 전개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Chan 2007, 330).

한국십진분류법 개정시 주 이용자인 공공도서관에서 한국소설장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라는 문헌적 근거에 엄밀하게 기반한다면 한국소설을 위한 분류항목은 전체 분류표의 14%에 해당하는 항목 혹은 주류(主類)항목을 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론적인 접근이며 현실적으로 한국소설의 전개를 위해 전체 분류항목의 14%, 혹은 주류항목을 배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분류표의 전체적인 균형과 논리적 구성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므로 14%라는 구체적인 수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전체 장서의 14%에 해당되는 장서가 목(目)항목에 분류되며 자료의 양이 많은 현대소설자료는 만구분에 해당하는 하나의 세목(細目)항목(813.6 혹은 813.7)에 분류되는 불균형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한국소설을 충분히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항목을 세분하고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3.1.2 개정방안

문헌적 근거와 도서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한국소설장서의 분류를 위한 한국십진분류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다음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는 개정의 범위와 방법론이 될 것이다.

우선 개정의 범위, 규모와 관련하여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한국소설에 해당되는 장서를 분류해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개정의 정도는 대폭적인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현재의 전개로는 향후 21세기에 발간되는 모든 한국소설이 하나의 세목항목(813.7)에 분류될 것이고 지금 도서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대로 재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십진분류법 문학류는 기본적으로 듀이십진분류법 문학류에 채용하고 있는 ‘문학-언어-형식-시대’의 인용순을 채택하고 있다(정해성 2003). 대표적인 한국소설류 분류항목인 현대(21세기)한국소설을 위한 항목 813.7의 각 자리는 ‘문학-언어-한국어-형식:소설-시대:현대/21세기’를 의미하는 기호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십진분류법 5판에서 한국소설 형식 아래 전개된 문학시대 구분을 위한 세목항목은 ‘-4: 고려시대’, ‘-5: 조선시대’, ‘-6: 20세기’, 그리고 ‘-7: 21세기’의 4개 항목이며 ‘-8은 동화’ 즉 형식을 구분하기 위한 항목이 설치되어 있다. 종합하면 한국십진분류법의 한국소설항목은 듀이십진분류법의 인용순 ‘문학-언어-형식-시대’의 토대위에 한국의 문학시대구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정된 한국십진분류법 5판에 따르더라도 소설의 세분을 위한 추가적인 세분항목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2000년 이후 2099년까지 발간되는 모든 한국소설은 813.7 하나의 세목항목에 분류될 것이다. 모든 21세기 한국소설이 813.7 하나의 세목항목에 분류된다면 세목항목 내에서 도서기호 등 부차적인 주제세분 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실제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단위의 책바다 서비스에서 한국십진분류기호 ‘813.6’으로 자료를 검색하면 전체 14만 2천여 종의 한국현대소설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⁶⁾ 이런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항목세분이 필요하며 이러한 세분 방안의 도입은 분류표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귀결된다.

세분항목의 도입을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할 때, 한국십진분류법 한국소설항목의 개정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은 1) 현재의 ‘문학-언어-형식-시대’의 인용순을 유지하고 시대를 세분하는 방안, 2) 형식아래에서 다시한번 세분형식항목을 전개하고 시대를 조합하여 ‘문학-언어-형식-소설세분형식-시대’의 새로운 인용순을 채용하는 방안, 그리고 3) 현재의 인용순을 유지하되 구분의 기준이 되는 패시워드 시대가 아닌 소설형식의 세분항목을 채택하여 ‘문학-언어-형식-시대-소설세분형식’의 인용순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대안으로 제시한 첫째 방안은 구체적으로는 소설형식에 따른 세분을 적용치 않고 813.7항목을 10년을 단위로 세분하여 전개하는 방안이

6)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바다(<http://www.nl.go.kr/>) 서비스의 ‘동양서(KDC)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검색한 결과이며, 담당자와의 통화(2012.2.6)를 통해 확인한 전체 서비스 기능 자료 중수 73만 건의 19.4%에 해당된다.

다. 이 전개방안의 대요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시대 세분을 도입한 한국소설류 항목 전개(시대세분안)

813 한국소설
.001~009 표준구분 적용항목
.4 고려시대
.5 조선시대
.6 20세기, 1910-1999
.61 1910-1945
.62 1945-1999
.7 21세기 소설
.71~.79 10년 단위 소설 세분 항목
.8 동화

이 개정방안은 현장에서의 분류작업이 출판년이 아닌 작가의 주활동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 활동기간이 10년을 넘는 작가의 작품에 대한 분류작업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간년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한다면 한 작가의 작품이 분산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그리고 10년의 연단위로 항목을 전개한다면 그 항목 역시 과중한 자료들이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2011년도에 813.7 항목에 분류된 소설장서가 1,496권으로 이러한 연간 장서 증가량⁷⁾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발간자료를 추정하면 일만 오천 중 이상의 장서가 해당항목에 분류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10년이라는 임의의 기간으로 항목을 전개하는 경우 역사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과 항목의 전개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도 주제의 구분에 소설이라는 주제의 본질적인 속성인 형식과는 관련성이 약한 시대라는 패킷을 적용하게 되므로, 주제의 세분에 본질적 속성이 아닌 구분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약점을 내포하게 된다.

둘째 대안은 형식아래에서 다시 한 번 세분형식항목을 전개하고 시대를 조합하여 '문학-언어-형식-소설세분형식-시대'의 새로운 인용순을 채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표준구분 항목과 소설 시대구분 항목을 세분형식에 따른 전개에 선행시켜 전개하며, 전체 세목을 세분형식 구분에 배정하는 방안이다. 이 개정방안에 기초하여 한국소설항목의 대요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 소설형식 세분전개를 도입한 한국소설류 항목 전개(형식세분안)

813 한국소설
.001~009 표준구분 적용항목
.01~09 소설 시대구분
.1 ~ 9 소설의 세분형식별 항목 (필요시 시대구분 조합가)

인용순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개정안은 '문학-언어-형식-소설세분형식-시대'의 인용순으로 전개되며, 문학에 있어 보다 본질적인 패킷인 형식을 통한 구분을 마무리하고 부차적으로 시대 패킷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인용순은 하나의 패킷 세분이 완료되고 다른 패킷이 적용되는 형태이므로 분류이론상 '특성의 연쇄 규범(Canons for succession of characteristics)'

7)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사서와의 면담(2012.2.6) 과정에서 온라인열람목록 관리자용 검색기능을 통해 확인된 수치임.

에 부합되는 인용순을 채용한 전개방안이 된다 (Ranganathan 1967, 152). 이 전개방안은 기호의 경제성과 짝막성의 관점에서 장점도 있다. 한국소설류를 세분하기 위한 세분형식 패킷이 813.1~813.9의 세목에 전개되므로 기존의 별법으로 제시된 세분형식을 적용하여 '813.70N'의 6자리 기호를 배정하는 경우보다 짧은 기호를 배정하게 되어 기호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호의 경제성은 단지 숫자 2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도서관 업무 전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한국소설류가 전체 장서의 14%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한국소설장서의 분류기호가 2자리 짧게 배정되게 되므로 데이터 입력, 배가, 검색 등 도서관의 전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문헌적 근거의 관점에서 위 전개방안은 장서량이 많은 한국현대소설들이 813 항목의 전체 세목 항목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현재의 전개보다 개선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전개방안은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항목 전개를 대폭 수정하는 방안이므로 현장에서의 재분류부담이 크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는다. 현재 한국십진분류법의 주된 사용자인 공공도서관의 장서 중 한국소설류 장서의 비중이 14%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분류의 부담 등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한국소설 세분형식 항목을 도입하면서도 현장의 재분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류체계의 전개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다음 표와 같은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방안은 현재의 한국소설의 전개

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표준구분 항목을 명확히 제시하고, 21세기 현대소설에만 세분형식을 통한 세분전개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표 5〉 세분형식 전개를 도입한 한국소설류 항목 개요(형식세분 - 절충안)

813 한국소설
.001~009 표준구분 적용항목
.4 고려시대
.5 조선시대
.6 20세기, 1910-1999
.61 1910-1945
.62 1945-1999
.7 21세기 소설
.71~.79 소설 세분형식 항목
.8 동화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전개안은 인용순에 있어 '문학-언어-형식-시대-세분형식'의 인용순으로 전개되며, 형식패킷을 통한 구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패킷인 시대패킷을 적용하고 다시 형식패킷을 적용하는 모양이 된다. 이러한 인용순은 하나의 패킷전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패킷이 적용되는 형태이므로 분류이론상 '특성의 연쇄 규범(Canons for succession of characteristics)'에 부합되지는 않는다(Ranganathan 1967, 152). 또한 2안에 비해 기호의 경제성 관점과 문헌적 근거와의 부합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상대적인 약점을 갖는 전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전개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813.6에 분류된 한국소설에 대해 재분류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고 새로 입수되는 21세기 한국소설에 대해서만 세분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현실적인 재분류의 업

무부담에 따른 현장적용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세분형식을 도입하여 세분 전개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재분류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종합하면 공공도서관 장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소설류를 위한 한국십진분류법 세분항목의 전개가 필요하며, 한국소설 세분전개를 위해 항목 전개의 기초가 되는 패킷은 형식과 시대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형식과 출판년이라는 두 패킷 가운데 문학이라는 장르의 기본적 속성과 좀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패킷은 세분형식의 패킷이고, 시대는 발간년이라는 임의적 속성에 기반한 패킷이라 할 수 있다(김자후 2011). 또한 시대 패킷을 도입한 세분전개 방안은 그 효과성에 있어서도 현재의 장서 과밀화를 해소하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국소설류 항목의 세분전개를 위해서는 소설의 세분형식을 세분전개를 위한 패킷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소설의 분류를 위해 세분형식 패킷을 도입하여 소설자료를 세분하는 주제전개 방안은 미국의 공공도서관들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Murphy 2011).

한국소설류 항목의 세분전개를 위해 형식을 구분의 기준인 패킷으로 채택하는 경우 위에서 제시한 2안과 3안의 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2안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에서의 적용문제까지를 고려하면 3안의 절충안을 채택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절충안은 현장에서의 적용관점에서도 장점을 갖는다. 현재까지 정리되었거나 이제부터 입수되는 20세기 한국소설에 대해 재분류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고, 이제부터 입수되는 21세기 한국소설류에 대해서만

813.71~813.79의 세분항목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의 작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위 절충안인 3안을 적용한 개정판에서 813.7의 적용범위를 '201N년(개정판 발간년) 이후 발간된 한국소설' 혹은 '2010년 이후 발간된 한국소설'로 규정한다면 현장의 재분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2 한국소설 세분형식 전개의 적합성 검증 및 전개방안

앞 절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한국십진분류법을 개정하여 '문학-언어-형식-시대-소설세분형식'의 인용순을 도입하여도 여전히 추가적인 고려의 필요성이 남는다. 세분형식별 항목 배정의 적합성 검증과 검증결과를 반영한 전개항목 구성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소설 세분항목의 적용과 관련한 현황조사과정을 통해 공공도서관 분류 담당 사서들은 5관 별법 세분형식 항목을 적용하더라도 대부분의 소설자료가 세분형식 가운데 '역사, 전기, 정치, 사회소설'과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의 두 항목에 집중될 것이고, 이에 따라 많은 노력을 들여 세분형식을 적용하더라도 장서의 집중이 발생할 것 이므로 적용의 효과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로 세분형식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세분형식을 적용하면 한국소설이 항목별로 세분될 수 있음을 증명하여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검증과정을 통해 소설장서가 균형 있게 분류될 수 있도록 항목전개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항목 전개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소설류의 세분형식 항목의 전개와 관련하여는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고 진행되고 있다(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2008; Murphy 2011). 그러나 듀이십진분류법 등 국외에서 검토된 세분형식을 살펴보면, ‘서부(western)소설’ 등의 항목이 전개되어 있고(Dewey 2011), 세분형식 별 출판량에 있어서도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있어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보인다.⁸⁾ 이에 따라 한국소설의 실재를 반영하여 세분형식의 전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세분항목을 전개하는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한국십진분류법에 별법으로 제공되고 있는 한국소설류 세분항목을 토대로 각각의 세분형식 항목에 분류되는 장서의 양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세분항목 전개의 적합성을 검증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향후 한국십진분류법 한국소설류의 세분전개를 위한 항목의 전개에 있어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판의 별법에서 제시된 세분항목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대상 공공도서관 온라인 목록의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813.6에 분류된 한국현대소설장서 5,300여종의 등록번호를 추출하였다. 통계처리 프로그램의 표본추출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의 세분형식 검토를 위한 표본 500종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표본의 실물자료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한국십진분류법 별법의 세분형식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추출된 표본 500종 가운데 대출/열람중이거나 서가에서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 76종을 제외한 424종을 대상으로 각 세분형식별 분류를 시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소설 세분형식별 장서비중은 ‘역사, 전기, 정치, 사회소설’ 항목이 26.89%로 가장 높고,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이 20.52%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이 두 항목은 장서비중이 2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어 해당 항목에 장서가 집중될 것이라

<표 6> 한국소설장서의 세분형식별 상세분류 결과

세분형식	관련 KDC 항목	종수		백분율	
단편소설	813.602	52		12.26%	
역사, 전기소설	813.603	68	112	16.04%	26.89%
정치, 사회소설		46		10.85%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	813.604	87		20.52%	
추리, 탐정, 모험소설	813.605	35		8.25%	
괴기, 유령, 공포소설	813.606	17		4.01%	
과학(SF), 공상, 판타지 소설	813.607	45		10.61%	
기타 소설	813.608	74		17.45%	
합계		424		100.00%	

8) DDC 23판의 문학류 전개를 위한 보조표 T.3B, T.3C에 전개된 소설 세분형식항목으로는 역사, 자전, 심리, 사회, 연애, 모험 등의 항목 등이 있으며, KDC 5판의 별법 항목에서는 단편, 역사, 연애, 추리, 과학 등의 항목이 전개되어 있다.

는 현장사서들의 예상에 부합함을 볼 수 있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괴기, 유령, 공포소설'이 4.01%로 분석되었으며, '추리, 탐정, 모험소설' 항목도 장서의 비중이 8.25%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가지 언급해 두어야 할 점은 KDC의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항목인 '역사, 전기, 정치, 사회소설' 항목은 '역사, 전기'와 '정치, 사회'로 구분하여 장서의 비중을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당 항목을 나누어 분석한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세분형식 적용시 '역사, 전기, 정치, 사회소설'과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의 소설이 많을 것이라는 실무사서들의 예상에 기반하여 해당 항목에서는 항목을 더욱 세분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역사, 전기'는 16.04%, '정치, 사회'는 10.8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항목을 추가적으로 세분전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의 경우 항목을 세분하여 분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누어 분석하지는 못하였으나, 20.52%라는 장서의 비중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항목의 추가 전개를 위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현재 한국십진분류법에 별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세분형식 전개의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십진분류법 5판의 한국소설류 항목에 별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소설세분형식별 항목 전개는 2개 항목에 장서가 집중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세분형식의 항목을 조정한다면 장서가 집중되는 '역사, 전기, 정치, 사회소설'과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 항목은 더 세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당 항목의 세분 방안으로 '역사, 전기, 정치, 사회소설' 항목은 '역사, 전기소설'과 '정치, 사회소설'로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장서의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항목 전개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서의 비중이 높은 위 항목의 전개 및 분류기호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장서의 비중이 낮은 '추리, 탐정, 모험소설' 항목과 '괴기, 유령, 공포소설' 항목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소설 세분형식 항목 전개 개선안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한국소설의 세분형식 항목 전개 개선방안

현행 KDC 5판의 소설 세분형식	개선방안	기호배정
단편소설	단편소설	2
역사, 전기, 정치, 사회소설	역사, 전기소설	3
	정치, 사회소설	4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 1	5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 2	(6) 배정유보
추리, 탐정, 모험소설	추리, 탐정, 모험, 괴기, 유령, 공포소설	7
괴기, 유령, 공포소설		
과학(SF), 공상, 판타지 소설	과학(SF), 공상, 판타지 소설	8
기타 소설	기타 소설	9

위와 같은 소설 세분형식별 분류항목 전개 및 적용에 따라 우려되는 점은 동일 저자에 의해 쓰여진 다양한 형식의 소설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소설에 있어 SF작가, 추리소설작가와 같이 저자별로 전문성을 갖는 세분형식이 상당 정도 고정되어 있고, 동일 저자가 상이한 세분형식의 작품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공공도서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 장서의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소설장서의 분류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소설장서 분류문제를 고찰해 보았다. 한국소설장서는 공공도서관에서 14%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장서이다. 이렇게 비중이 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한국십진분류법의 항목은 목항목에 해당되는 '813'의 항목이 배정되며, 특히 장서의 양이 많은 현대한국소설은 분류표의 세목항목에 해당되는 '813.6', '813.7'의 세목만이 배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5판에서는 별법으로 소설형식의 세분전개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는 공공도서관은 많지 않고 또 적용에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한국십진분류표 관련 항목의 세분전개 부족과 분류작업현황에 따라 동일 분류항목에 지나치게 많은 자료가 분류되고 도서기호 또한 중복되어 부여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가작업자는 배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용자는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서가에서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여러 서비스 가운데 열람과 대출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의 하나로써 이용자의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소설장서의 열람과 대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소설장서의 분류를 위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소설장서의 분류업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로 한국십진분류법을 소설 항목에 세분형식을 적용하여 전개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설 세분형식의 전개항목의 적합성을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분전개방안을 적용하더라도 장서의 양이 많아 추가적인 세분방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도서기호를 주제세분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고찰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십진분류법의 한국소설 항목은 주 사용자인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성을 고려할 때, 세분전개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세분전개에 채용할 수 있는 분류의 기준으로는 시대와 소설세분형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문학류의 본질적 속성과의 연관성과 전개항목의 구분성을 고려하면 세분형식이 더 적합한 구분기준으로 판단된다.
- 세분형식을 적용하여 항목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전면 개정안과 절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전면 개정안이 우수하고 선호되나, 재분류작업 등 도서관

현장에서의 적용 문제를 고려하면 절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구체적인 세분형식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항목전개의 적합성을 검증하였고, 검증결과로 일부 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항목조정이 필요한 세분형식은 '역사, 전기, 정치, 사회소설'과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 항목으로 항목의 세분 및 추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호를 확보가 필요하다면 나누어 전개되어 있는 '추리, 탐정, 모험' 항목과 '괴기, 유령, 공포소설' 두 항목을 통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도서관 장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소설장서의 분류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료에 대한 열람과 대출서비스는 공공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효율적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자료의 분류와 정리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만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류와 정리작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한국십진분류법, 즉 도구의 정비와 더불어 실무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개별 공공도서관들은 한국소설장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분류작업에 있어 청구기호의 개별화가 가능하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소설류 분류실무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부분은 현장에서 한국소설류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설장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겠으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장서인만큼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한국소설 장서를 활용한 각종의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기반으로 분류 및 정리업무 단계에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들에서 한국소설류의 분류 및 정리작업의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과 완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이용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이용자들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자후, 2011. 문헌분류법의 시·공간 전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5-24.
- [2] 대한출판문화협회, 2012. 출판통계. [online]. [cited 2012.4.25]. <<http://www.kpa21.or.kr/>>.
- [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2.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online]. [cited 2012.4.25].

<<http://www.libsta.go.kr/index.do>>.

- [4] 리재철. 1986.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 서울: 아세아문화사.
- [5]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2008. KDC 제4판 언어 및 문학류 전개의 개선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141-157.
- [6] 오은영. 2007.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 어머니 독서회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7] 윤희운, 김일영. 2011. 이용계수를 적용한 공공도서관 소설장서 평가. 『정보관리연구』, 42(4): 175-194.
- [8] 이경란. 2011. 『공공도서관 청소년 프로그램 모형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9] 정해성. 2003. 문학류를 위한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2): 273-296.
- [10] 한국도서관협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1] Chan, L. M. 1980. *Immroth's Guide to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3rd ed.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 [12] Chan, L. M. 2007.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An Introduction*. 3rd ed. Lanham, MD: Scarecrow Press.
- [13] Dewey, M. 201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rd ed. Dublin, Ohio: OCLC.
- [14] Murphy, M. 2011. "Research participants needed for study on fiction classification schemes!" [online]. [cited 2011.10.12].
<<http://listserv.oclc.org/scripts/wa.exe?A2=ind1110b&L=oclc-cat&T=0&F=P&X=5DE1784F6404684B56&Y=sungwonk%40cnu.ac.kr&P=1123>>.
- [15] Ranganathan, S. R. 1967.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Ja-Hoo. 2011. "A study on time & space division in literature classifi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5-24.
- [2]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2012. *Publication Statistics*. [online]. [cited 2012.4.25].
<<http://www.kpa21.or.kr/>>.
- [3]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2. *National Libraries Statistics System*.

- [online]. [cited 2012.4.25]. <<http://www.libsta.go.kr/index.do>>.
- [4] Lee, Jai-Chul. 1986. *New Chronological Book Numbers*. Seoul: Asia Culture Corp.
- [5] Oh, Dong-Geun, Bae, Yeong-Hwal, & Yeo, Ji-Sook. 2008. "Suggestions for the classes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4th edit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141-157.
- [6] Oh, Eun Young. 2007. *A Study on the Operations and Improvement of Mothers' Reading-Clubs in the Public Libraries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M.A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 [7] Yoon, Hee-Yoon, & Kim, Il-Young. 2011. "Evaluation of the fiction collection of public libraries based on use factor."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2(4): 175-194.
- [8] Lee, Gyeong-Ran. 2011.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Young Adult Program Model for Public Library*. Ph.D. diss.,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9] Chung, Hae-Sung. 2003. "A study on the proposed faceted scheme for literatur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2): 273-296.
- [10]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